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박수진	소 속	메디컬IT융합공학과
학 년		학 번	
연수 국가	영국	해외 연수 기관	글로스터셔 대학
연수 기간	2019.01.07. - 2019.02.01		

해외 단기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영어회화를 공부할 수 있지만, 저는 영어권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영어회화에 자신감은 없었지만 가서 배우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영국행을 택했습니다.

가기 전까지 크게 걱정할 건 없었는데, 막상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나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영국 입국심사 절차가 많이 까다롭다던데 입국거절 당하면 어떡하지?', '홈스테이는 어떻게 적응해야할까', '학교까지는 어떻게 가지'...

막상 영국에 도착하고 학교에서 준비해준 서류들 덕분에 입국심사도 통과하고, 제 생각보다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픽업하러 와주신 매니저님께서 학생들의 각 홈스테이까지 태워주셨고, 도착한 홈스테이에서도 거의 3일만에 완전히 적응 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모든 게 낯설고,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기만 했던 것들이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간 학생들끼리 런던여행도 가고, 영국생활을 제대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 4주란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는데,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런던여행에선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적도 있고, 버스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내가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답답한 적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느낀게 너무 많아서 결코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지만, 노팅힐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버스시간을 놓치긴 했지만 다음 버스시간까지 런던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천천히 이야기해도 된다고 끝까지 저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줬던 소중한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상황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영국에 한 달 잠깐 다녀와서 영어실력이 늘었다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살면서 직접 영국인들의 삶을 경험해 본 덕분에 제 생각의 폭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제겐 잊지못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민없이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거라 확신합니다.